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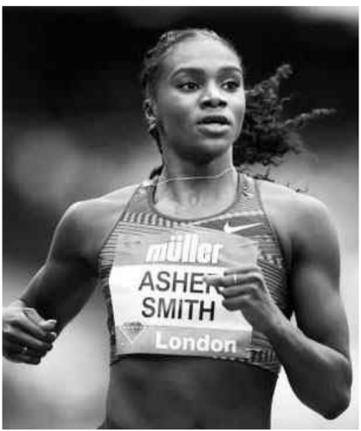
샤캐리 리처드슨



일레인 톰프슨



프레이저-프라이스



어셔 스미스

신성 vs 전설... 여자 육상 최고 스프린터 가린다

'떠오르는 별' 리처드슨, 현역 최고 단거리 선수 3명과 명승부 예고 24일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여자 100m 올해 최고의 빅매치

여자 육상 단거리 '신성' 샤캐리 리처드슨(21·미국)이 현역 최고 스프린터 3명과 명승부를 벌인다.

오는 24일(한국시간) 영국 더럼주 게이트헤드에서 열리는 2021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여자 100m 경기에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35)와 일레인 톰프슨(29·이상 자메이카), 디나 어셔 스미스(26·영국), 리처드슨이 출전한다.

세계 육상이 주목하는 '2021년 빅 이벤트'다. 세계육상연맹은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4명의 대결 성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리처드슨은 미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신성'이다.

그는 4월 11일 미국 플로리다주 미라마에서 열린 미라마 인비테이셔널 여자 100m에서 10초72

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다. 2021년 세계육상연맹 1위 기록이기도 하다.

리처드슨은 단박에 '선수 기준'으로 역대 여자 100m 6위에 올랐다.

리처드슨보다 좋은 기록을 보유한 선수는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10초49), 카말리타 지터(10초64), 매리언 존스(10초65), 프레이저-프라이스, 톰프슨(이상 10초70) 등 5명뿐이다. 이중 현역은 프레이저-프라이스와 톰프슨, 단 2명이다.

리처드슨은 5월 11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월넷에서 치른 미국육상연맹 골든게임즈에서는 예선 10초74, 결선 10초77을 기록하며 '하루에 두 번이나 100m를 10초8 미만에 주파하는 진기록'을 작성했다.

미국육상연맹은 "리처드슨이 그리피스 조이너, 셸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만이 달성했던 '하루

에 두 차례 10초8 미만 주파'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키 155cm의 리처드슨은 한 달 사이에 '가장 주목받는 여자 스프린터'로 떠올랐다.

'미국 최고 스프린터'로 인정받은 리처드슨은 이제 세계 무대로 나선다.

24일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는 리처드슨의 '국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프레이저-프라이스는 '역대 최고 스프린터'로 꼽힌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 9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2019년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고도 여자 100m에서 우승해 '엄마 스프린터'의 위용을 뽐냈다.

톰프슨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100m·200m를 석권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10초7대 기록을 유지했다.

어셔-스미스는 '유럽이 사랑하는 스프린터'다. 2019년 세계선수권에서 200m 금메달, 100m 은

메달을 차지했다.

미국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여자 100m에서 금메달을 얻지 못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매리언 존스가 10초75로 우승했으나, 존스가 2007년 "2000년 시드니 대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했다"고 고백하면서, 시드니 대회 금메달이 박탈됐다.

올해 7월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서도 여자 100m는 자메이카의 우세가 점쳐졌다. '대항마 1순위'도 미국 선수가 아닌 영국의 어셔-스미스였다.

그러나 리처드슨이 등장하면서 미국 육상도 '올림픽 여자 100m 정상 탈환'의 꿈을 되찾았다.

2008년 베이징과 2012년 런던(프레이저-프라이스), 2016년 리우(톰프슨) 등 3개 대회 연속 올림픽 여자 100m 금메달을 손에 넣은 자메이카도 수성 의지가 강하다.

어셔-스미스도 유럽 스프린터의 자존심을 걸고 도쿄올림픽을 준비한다.

2021년 세계 육상이 주목하는 여자 스프린터 4명은 24일 열리는 다이아몬드리그 100m 경기에서 도쿄올림픽 전초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UFC 최승우·정찬성 다음달 동반 출격



'스팅' 최승우(29·사진 오른쪽)가 '코리안 좀비' 정찬성(34)과 동반 승리를 노린다.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인 UFC는 6월 20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UFC 에이펙스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에 페더급 최승우가 출전한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최승우는 '베테랑' 출신인 에로사(33·미국)를 상대로 UFC 3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 메인이벤트에선 페더급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댄 이계(30·미국)와 격돌할 예정이다.

두 명의 코리안 파이터가 동시 출격해 더욱 그 결과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지난 2월 코리안 파이터 중 첫 주자로 나선 최승우는 유서프 잘랄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 끝에 판정승을 거두고 UFC 재계약까지 따냈다.

최승우는 국내 격투기 단체 TFC 페더급 챔피언 출신으로 2019년 UFC 입성 후 2승 2패를 기록 중이다.

최승우의 상대는 종합격투기(MMA) 통산 34번의 경기를 치른 에로사다.

에로사는 25번의 승리 중 22번의 끝내기 승리를 기록했고, 바로 직전 네이트 란트베어를 상대로 1라운드 56초 만에 TKO 승리를 거뒀다.

2015년 UFC에 데뷔한 에로사는 1승 1패 후 잠시 육타곤을 떠나 있었다.

2018년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를 통해 UFC에 재입성, 심기일전했으나 3연패에 빠져 다시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구사일생으로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UFC에서 2연승을 거두며 육타곤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게 됐다. /연합뉴스

290야드 날리는 14세 소녀, US여자오픈 출전

다음 달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에 '괴물 소녀'가 등장한다.

골프위크 등 미국 골프 전문 매체는 14세 '골프 천재' 클로이 코벨리스키(미국)가 올해 76회째를 맞는 US여자오픈에서 최연소 출전자라고 18일(한국시간) 전했다.

올해 1월 14번째 생일이 지난 코벨리스키는 지난 10일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의 반안케이 리조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US여자오픈 지역 예선에서 1, 2라운드 모두 70타를 쳐 합격했다.

코벨리스키는 어머니 티나가 "골프 클럽을 지니고 태어난 줄 알았다"고 농담을 할 만큼 일찌감치 골프채를 잡았다.

첫 돌이 막 지나서 걸음마를 때부터 아버지 리처드가 쥐여준 퍼터와 웨지를 갖고 놀았다. 뒷마당에 마련한 인공 잔디 퍼트 연습장은 코벨리스키의 놀이터였다.

다섯 살 때 부모가 골프장에 딸린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코벨리스키는 골프 코스를 누비기 시작했다. 여덟 살 때 쇼트게임 대회에 출전하면서 대회에 나서기 시작한 코벨리스키는 7~8세 US키즈 챔피언십을 두 차례 우승하고, 주니어 월드 챔피언십 8세 부문을 제패해 두각을 나타냈다.

프로 무대도 낯설지 않다.

코벨리스키는 플로리다주 미니투어에서 다섯 차례 5위 안에 들었다.



아버지 리처드와 함께 한 클로이 코벨리스키.

그는 나이는 어리지만 280야드에서 290야드의 장타를 때린다. 여전히 키가 크고 있어 얼마나 더 멀리 볼을 날릴지 모른다.

그는 열두 살 때 US여자오픈에 출전한 '고향 언니' 모건 프레스(미국)를 우상으로 여기고 있으며, 둘은 자주 연락하는 사이이기도 하다.

또 렉시 톰프슨(미국), 미국 교포 크리스티나 김(한국 이름 김초롱)과도 친하다.

코벨리스키는 "US여자오픈에서 다들 만날 것이라 설렌다"면서 "내 미래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포츠 과학·의학 접목 지역선수 경기력 향상

전남도체육회-순천에스병원 체계적 관리 업무협약

전남도체육회와 순천에스병원이 전남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사진 오른쪽)와 순천에스병원(대표병원장 박영군)은 전남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최근 개최했다. 스포츠 과학과 스포츠 의학을 접목시켜 전남지역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 병원은 무중력 트레이닝, 운동 치료실 등 운동선수의 부상 재활에 특화된 스포츠 의학 및 재활 전문병원이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박영군 대표원장은 LG트윈스 프로야구단,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필드닥터를 거쳐 현재는 전남드래곤즈 프로축구단 팀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 의학 전문가다.

에스병원은 전남체육인들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전남스포츠과학컨디셔닝센터 운영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도체육회는 스포츠과학센터에 스포츠의과학을 접목함으로써 선수들의 부상 예방, 재활, 경기력 향상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재무 회장은 "에스병원과 꾸준한 협업을 통해 선수들에게 최고의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군 원장은 "수년간 프로팀 팀닥터로 활동한 경험을 통해 전남체육 발전과, 전남스포츠컨디셔닝센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며 "선수들이 부상 후 재활과정에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부상 전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0세 윌리엄스, 18세 피가토 꺾고 석달만에 WTA 투어에서 승리

세리나 윌리엄스(8위·미국)가 석 달 만에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대회에서 승리를 따냈다.

윌리엄스는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파르마에서 열린 WTA 투어 에밀리아로마냐오픈(총상금 18만9708 유로) 대회 첫날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리사 피가토(572위·이탈리아)를 2-0(6-3 6-2)으로 물리쳤다.

윌리엄스는 올해 2월 호주오픈에서 4강까지 올랐고, 이후 한동안 대회에 나오지 않다가 지난주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에 출전했다.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에서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으나 2회전에서 나디아 포도로스카(42위·아르헨티나)에게 0-2(6-7(6-8) 5-7)로 져 탈락했다.

에밀리아로마냐오픈에 와일드카드 자격으로 출전한 윌리엄스는 이날 자신의 첫 서브 게임을 내줬지만 이후로는 이렇다 할 위기가 없이 1시간 8분 만에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1981년생 윌리엄스가 이날 상대한 피가토는 2003년생으로 둘의 나이 차이는 22살이나 됐다. 18세인 피가토가 윌리엄스 나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링: 더 라스트 챔피언
2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3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더 스파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4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토토리! 우리 둘만의 여름
5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6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9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스파이럴 아들의 이름으로
7관 씨네커블	스파이럴, 비와 당신의 이야기 아들의 이름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
8관 씨네커블	도라에몽: 스텐바이미 2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내일의 기억 링: 더 라스트 챔피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2021.05.28(금) 11:00AM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4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2021.05.28(금)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4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운 피아노 리사이틀

2021.06.26(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